

인문계(1교시) 문제 해설

[문제 1]

1. 출제의도 및 해설

인간과 사회의 상대적 가치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되는 시각들인 개인주의(자유주의)와 집단주의(공동체주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임.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관점들을 담고 있는 제시문들을 고등학교 교과서-『윤리와 사상』와 EBS 교재-에서 4개 그리고 기타의 자료에서 1개를 선택하여 제시하고, 이 제시문들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혹은 공동체주의)로 분류하게 만들고, 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2. 채점기준

아래의 세 가지 채점 포인트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따라 채점

- ① 개인주의(제시문 2, 5)와 집단주의(제시문 1, 3, 4)로 정확히 분류하였는가?
- ② 각 입장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요약하였는가?
- ③ 두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였지만, 통합적으로 요약하지 않고 각 제시문을 각각 요약하였는가? (이 경우 우수한 요약은 아님)

3. 모범답안

- i) 개인주의(자유주의)(제시문 2, 5): 자율적이고 주체적 존재로서의 존엄한 개인이 가치판단의 중심에 있다고 보며, (정치)공동체의 존립근거도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와 권리보호에서 찾는 윤리적 관점 혹은 문화.
- ii) 집단주의(공동체주의)(제시문, 1, 3, 4): 개인은 자아정체성과 삶의 목표, 그리고 사회적 기대와 책무까지도 공동생활을 통해 갖게 되는 공동체적 존재로서, 공동체의 행복과 조화에 기여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윤리적 관점 혹은 문화.

[문제 2]

1. 출제의도 및 해설

학생들은 문제에 제시된 두 가지 자료를 통해서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 그리고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차원에 따라서 개인의 행복감에 중요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름을 추론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자료를 [문제 1]에 제시된 개인주의의 핵심 특징(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개인의 성취와 행복) 및 집단주의의 핵심 특징(대인 관계와 집단에서의 역할과 책임, 조화와 협력, 집단의 성취 및 공동체의 번영)과 연관지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 채점기준

아래의 세 가지 채점 포인트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따라서 채점

- ① <자료 1>과 <자료 2> 각각을 정확하게 해석하였는가?
- ② <자료 1>과 <자료 2>에 제시된 결과를 통합하여 정확하게 해석하였는가?
- ③ 자료에 대한 해석을 [문제 1]에 제시된 개인주의-집단주의의 특징과 연결지어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는가?

3. 모범답안

- i) 서양의 국가들은 집단의 목표보다 개인의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개인주의), 동양의 국가들은 개인의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를 중요하게 여긴다(집단주의). 그리고 삶의 즐거움과 만족으로 측정된 행복감 수준은 서양이 동양보다 높다.
- ii)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성취, 삶의 즐거움과 만족이 중요하며 이러한 특징은 서양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대인관계와 집단에서 개인의 역할과 책임, 조화와 협력, 그리고 집단의 성취가 중요하며 이러한 특징은 동양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 iii) 개인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행복의 지표로 삼으면 그러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잘 충족되는 서양의 국가들이 동양의 국가들보다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다. 이와 달리, 동양에서는 문화적 규범을 잘 따르고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기여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지가 개인의 행복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문화에 따라 다르며, 서양의 행복 기준을 다른 문화권에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문제 3]

1. 출제의도 및 해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임. 문제 1의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 입장 (집단주의)을 택하여 다른 입장(개인주의)를 비판하는 문제임.

2. 채점기준

- 1) 자료를 정확히 해석했는가? 아래 4가지를 국가 A와 B의 정책 “가”와 “나”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 했는가? (1) 의료비 부담 비율, (2)일인당 평균 병원 방문 횟수, (3)사망률, (4)사회 전체 의료비
- 2)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이해하고 있는가?
- 3) 집단주의를 들어서 개인주의를 비판 했는가?

3. 모범답안

- 자료 설명: 국가 A의 정책 “가”는 의료비 부담이 높아서 병원 방문 횟수가 낮고, 사회 전체 의료비가 낮다. 하지만, 정책 “나”는 의료비 부담이 낮아서, 병원의 방문 횟수가 높고, 사회 전체 의료비가 높다. 반면 국가 B는 정책 “가”와 “나”에 상관없이 병원의 방문 횟수가 서로 비슷하고 사회 전체 의료비 또한 비슷하다. 또한, A와 B 국가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평균 사망률은 서로 비슷하다.
- 비판: 국가 A의 국민들은 사망률과는 상관없이 cost-benefit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사회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킨다. 하지만, B국가의 국민들은 사회전체를(사회 전체 의료비) 생각해서 정책 “나”의 상황에서도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고, 그로 인해서 사회 전체 의료비도 줄인다. 이는 국가 A의 개인들이 이익 또는 권리만을 주장하고,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하겠다.

[문제 4]

1. 출제의도 및 해설

4번 문제인 개인 성과급 제도의 국가문화와의 정합성 논술 주제는, <도덕과> 교과서의 ‘윤리와 사상’, 특히 사회사상 중 ‘공동체와 연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은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개인주의-공동체주의, 이와 관련해 국가문화의 한 차원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최근 한국 사회현상인 성과급 제도 확산 사례에 적용해서 두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논평할 수 있는 논술 역량을 측정하려고 출제하였다.

기본적으로, 개인중심의 성과급 제도는 개인주의 국가문화와 정합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집단주의 국가문화와 정합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와의 제도 정합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분석력이 요구된다.

2. 채점기준

■ 모범 답안의 내용

i) 개인 성과급 제도의 확산에 찬성하는 견해의 논거

- 개인주의 문화와 연계: 개인의 목표달성, 경쟁과 성과/성취를 선호하는 가치관이 강한 문화.
- 개인의 성과-보수를 연계하여, 개인 간 성과 경쟁을 자극하면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열심히 일하려는 직무태도를 강화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음
- 성과-보수 관계를 강화하여 보수의 개인 간 공정성을 제고함

ii) 개인 성과급 제도의 확산에 반대하는 견해의 논거

- 공동체주의/집단주의 문화와 연계: 집단의 공동목표, 조화와 협력을 선호하는 가치관이 강한 문화.
- 개인 성과급의 확산은 팀워크를 해칠 수 있음
- 지나친 개인 간 성과 경쟁으로 집단 협력을 저해할 수 있음
- 개인 인센티브의 강조는 창의성에 부정적 효과: 안전한 사업/과제에 치중하려는 경향

iii)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유형과 연계한 성과급 제도 제안

- 개인 성과 + 부서/기관 성과의 종합 평가: 절충적 성과급
- 개인성과급 제도의 다양한 설계 대안; 100% 성과급, 기본급+성과급, 특별성과급 등

- 기관 이윤 극대화 수준에 적합한 개인 성과급 제도

iv) 한국사회의 집단주의 문화와의 정합성 분석

- 현행 성과급 제도의 지나친 확산으로 형식주의적 운영 실태 비판
- 제도와 문화의 정합성을 고려한 점진적, 절충적 성과급 제도의 대안 제시

3. 모범답안

모범답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를 기대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개인 성과의 상대평가를 통한 차별적 보상의 개인 성과급 제도는 상대적으로 개인주의 국가문화와 정합성이 높은 반면, 집단주의 국가문화와는 정합성이 낮다. 개인주의 국가문화는 개인의 목표추구, 경쟁, 성취를 선호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집단주의 국가문화는 집단의 공동목표, 협력, 조화를 선호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성과급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문화 유형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설계가 가능하다. 개인 성과 중심의 보상, 개인-집단 성과의 보상, 집단 성과 중심의 보상의 대안은 개인-집단주의 국가문화와 관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개인중심의 성과급을 찬성하는 경우에도, 전면 성과급, 기본급+성과급, 특별 성과급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한국사회에 상대적으로 강한 집단주의 문화의 맥락에서, 개인중심의 성과급 제도의 확산 현상에 대한 정합성을 분석하고, 부정합에 따른 제도의 변형과 저항을 이해하고, 점진적, 또는 절충적 성과급 제도 확산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인문계(2교시) 문제 해설

1. 출제의도 및 문제 구성

2016학년도 논술고사(인문 2교시)의 주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으로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재론’이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사회 문화> 교과서의 II단원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제목으로 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다. 본 출제진은 이 주제를 통해 수험생들로 하여금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그 현실적 적용에 대해 성찰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논술고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주제를 그대로 추출하고, 제시문과 자료 또한 교과서 및 EBS 교재에서 발췌하는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최대한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문제 1] 요약형 문항으로, 5개의 제시문들을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인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재론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사회 실재론 입장인 제시문 3개와 사회 명목론 입장인 제시문 2개를 찾은 다음, 각 입장의 핵심 논지를 축약적으로 서술하는 문제이다.

[문제 2] 평가형 문항으로, 제시된 <자료 1>의 채용 패턴을 해석하여 면접관들의 채용 패턴이 학연이라는 연줄의 영향, 즉 사회구조(연결망)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해석한 뒤(사회 실재론의 입장을 확인), 이를 활용하여 사회 명목론의 입장을 비판하여 서술하라는 문제이다.

[문제 3] 설명형 문항으로, 제시된 <자료 2>를 정확히 해석하여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밝혀내고, 특히 한국의 변화 양상이 보여주는 특징이 정부지원의 상대적인 미비로 인한 제도(환경)의 영향 때문이라는 점에서 사회 실재론 입장에 근거할 때 설명될 수 있음을 서술해야 한다.

[문제 4] 대안 제시형 문항으로, ‘토지수용제도를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두 입장 중에서 하나의 선택을 사회 실재론과 사회 명목론의 관점을 근거로 하여 정당화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수험생 자신의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입장의 선택을 논리적 관점에서 잘 논술하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2. 채점기준 및 문항해설

[문제 1]

■ 문항 해설

[문제 1]은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나누고, 각 입장을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의 작성 포인트는 각 제시문 안의 핵심용어 및 핵심 문장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각 입장의 논지를 축약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제시문 1> ~ <제시문 5>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크게 사회가 개인과 무관한 독립적 실재로서 존재한다는 사회 실재론과 사회란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로서, 개인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사회 명목론으로 대별된다. 제시문 1, 3, 5가 전자에 속하며, 제시문 2와 4가 후자에 속한다. 각 제시문별로 논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시문 1: 사회적 사실은 개인 외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로, 개인에게 강요되거나 강제 된다.
- 제시문 2: 유의미한 행위의 주체는 오직 개인 뿐이며, 유의미한 의식 또한 개인적인 것이고, 집합의식은 가정에 불과하다.
- 제시문 3: 국가는 개인에 앞서서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그 이유는 국가는 전체며, 개인은 그 부분이기 때문이다.
- 제시문 4: 생명, 자유, 재산 등은 지배자에게 줄 수 없는 자연권이다. 국가는 이러한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 제시문 5: 사회는 생물 유기체와 유사한 것으로, 개인은 생명체를 위해 존재하는 각 기관처럼 사회를 위해 존재하며, 사회를 떠나서는 의미없는 존재가 된다.

■ 채점 포인트

- ① 제시문의 분류가 제대로 이뤄졌는가?
- ② 각 입장의 논지를 올바르게 기술하였는가?

③ 사회 실재론 대 명목론의 대비가 명확히 드러나는가?

[문제 2]

■ 문항 해설

[문제 2]는 제시된 <자료 1>에서 면접관들의 채용 패턴이 학연이라는 사회구조(연결망)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해석한 뒤(사회 실재론의 입장을 확인), 이를 활용하여 사회 명목론의 입장을 비판하여 서술하라는 문제이다.

[문제 1]에 나타난 사회 실재론과 연관지어 <자료 1>에 나타난 채용 패턴을 해석

- 채용 패턴: 면접관과 지원자의 출신학교가 동일할 때 채용자 수(채용률)가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면접관/지원자의 능력, 출신대학 수준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므로) 학연으로 나타난 사회의 연줄구조가 개인의 판단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 사회적 구조는 개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

[문제 1]에 나타난 사회 명목론을 비판

- 개인의 행동은 자신의 자율적인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회구조(학연)에 영향을 받음

■ 채점 포인트

- ① 채용 패턴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 ② <자료 1>을 [문제 1]에 나타난 사회 실재론과 잘 연관지었는가?
- ③ [문제 1]에 나타난 사회 명목론을 제대로 비판하고 있는가?

[문제 3]

■ 문항 해설

[문제 3]은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의 관계에 대한 OECD 국가들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이와 연관지어 한국 상황의 특이점을 찾아내 그 원인을 사회 실재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포인트임

① <자료 2>를 해석하는 단계

- OECD 국가들의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은 1980년 음(-)의 관계였지만 2010

년 양(+)²의 관계로 변화하였음

- 하지만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변화 경향과 달리 한국은 여성고용률이 증가하자 합계출산율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1980~2010년까지의 여성 고용률이 약 3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변화는 거의 없음
- 이에 반해 한국은 약 10% 정도의 여성고용률 증가에 비해 출산율 변화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함

② 원인을 설명하는 단계

- 사회 실재론적 관점에서 출산·양육의 문제는 개인적 행동이나 결정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 제도와 구조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문제임
- <자료 2>의 막대그래프를 보면 출산·양육 비용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출이 합계출산율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채점 포인트

- ① 1980년, 2010년 OECD 국가들의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술했는가?
- ② 한국의 예외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술했는가?
- ③ 한국의 예외적 상황을 사회 실재론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였는가?

[문제 4]

■ 문항 해설

[문제 4]는 [문제 1]의 두 관점인 사회 실재론과 사회 명목론의 입장을 근거로 하여 ‘토지수용제도’를 찬성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를 두 입장 각각에 대해 정당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다. 수험생 자신의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은 아니며, 찬반의 각 입장을 두 관점 중 각 하나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사회 실재론의 관점에 기반해 보면 정책과 제도 등은 사회(혹은 집단이나 공동체)가 실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고 개인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것에 해당하므로 토지수용제도를 수용하는 선택, 즉 찬성 입장을 지지하는 기반이 된다. 반면에 사회 명목론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행위와 의사결정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라는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토지수용제도는 수용할 수 없는 선택, 즉 반대 입장과 연결된다.

■ 채점 포인트

- ① 토지수용제도의 찬성견해를 사회 실재론의 관점과 연결하고, 반대입장을 사회 명목론의 입장과 연결하고 있는가?
- ② 찬성 혹은 반대의 적절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 ③ 서술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인문계(3교시) 문제 해설

[문제 1]

1. 출제의도 및 해설

[문제 1]은 요약형 문항으로, 민주주의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두 가지 방식(단순 다수제와 비례 대표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5개의 지문을 제시하였다. <제시문 1, 4, 5>는 단순 다수제 방식을 주장하는 입장이며, <제시문 2, 3>은 비례 대표제 방식을 주장하는 입장에 속한다.

답안은 먼저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두 입장의 핵심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채점기준

- ① 제시문을 제대로 분류하였는가?
- ② 분류된 제시문에서 각 입장의 논지를 적절히 도출하였는가?
- ③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었는가?

3. 모범답안

1) 단순 다수제는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해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유권자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준다.

<제시문 1> 단순 다수제는 한 정당이 다수 의석 점유할 수 있으므로 선출직 대표자의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제시문 4> 다수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의 의지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유권자의 선택이 만나면 그 결과 다수 유권자의 뜻이 공공선으로 실현된다.

<제시문 5>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 난립함으로 일관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진다.

2) 비례 대표제는 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합의에 이르기 위해 협상에 참여하고 타협을 도모하도록 유도한다.

<제시문 2>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소수의 동의도 사회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므로 협상과 타협, 관용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제시문 3> 비례대표제는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정책결정에 잘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이 높은 제도이다.

[문제 2]

1. 출제의도 및 해설

[문제 2]는 평가형 문항으로, 학생은 양당제 하에서 단순 다수결 투표 방식이 실제로는 다수의 의견에 접근하지 못함을 주장하는 <보기>의 이론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 이론에 근거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인 단순 다수결 방식의 문제점을, 제시문을 충실하게 활용하여 비판해야 한다.

2. 채점기준

- ① <보기>의 내용(중위투표자의 선호가 선거결과를 결정함)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해석하였는가?
- ② 해석결과가 갖는 단순 다수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였는가?
- ③ <제시문>에 제시된 단순 다수결과 비례 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단순 다수결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비판하였는가?

3. 모범답안

1) 자료 해석 내용

이 이론에 따르면, 양당제 하에서 단순 다수결 방식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유권자의 선호가 <그림>처럼 분포하는 가상적 상황에서, 전체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의 평균값(90억 달러) 또는 가장 많은 수의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150억 달러)을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대안(100억 달러)을 지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

2) 단순 다수결 제도 문제점 비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단순 다수결 제도를 비판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들이 시민의 관심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제시문 1),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으로 다수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으며(제시문 4),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제시문 5) 점이 제시문이 주장하는 단순 다수제 또는 양당제의 장점이다. 그러나 <보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시문이 설명하는 장점이 나타나지 못하고, 전체 유권자의 선호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는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정책으로 집행되어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단순 다수결 방식은 대표를 선출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적절한 방식이 아닐 수 있다.

3) 추가 논의(가산점 부여 가능)

<보기>처럼 유권자의 선호가 다원화된 경우, 단순 다수제는 비례 대표제와는 달리 합리적인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거나(제시문 2), 다양한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지(제시문 3) 못한다.

[문제 3]

1. 출제의도 및 해설

[문제 3]은 설명형 문항으로, 집단의사결정에 요구되는 동의비율과 총비용의 관계를 보여주는 두 사례를, 제시된 표와 그래프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비교 설명한 다음, 각 사례가 <제시문 2>와 맺는 논리적 관계를 이용하여 사례 별로 <제시문 2>를 지지 또는 반박하는 문제이다.

2. 채점기준

- ① 집단의사결정 동의비율의 변화에 따라 <사례 1>과 <사례 2>로부터 공통적인 현상과 상이한 내용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는가?
- ② 비용 A와 비용 B의 상충적인 (trade-off) 구조를 이용하여 총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의비율이 각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설명하였는가?
- ③ 각 사례별로 <제시문 2>의 견해를 총비용뿐만 아니라 비용 A와 비용 B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는가?
- ④ <보기>에서 제시된 가정에 벗어난 현상이나 논리를 이용하는 경우 오답.

3. 모범답안

1) 사례에 나타난 현상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집단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동의비율이 커짐에 따라 비용 A는 감소하고 비용 B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비용의 합으로 정의되는 총비용은 집단 의사결정 동의비율이 커짐에 따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방식인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동의비율은 <사례 1>은 높게 나타난 반면 <사례 2>는 낮게 나타나 있다.

2) 각 사례를 이용한 [문제 1]의 <제시문 2>의 견해를 지지 또는 반박

<제시문 2>는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 합리적인 협상과 타협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사례 1>의 경우 최소 총비용을 초래하는 동의비율이 단순 과반수를 초과하여 나타나 있으므로 <제시문 2>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사례 2>와 같이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요구되는 비용이 매우 크거나 선호가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례의 경우 추가적인 합의 또는 타협의 노력은 오히려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여 <제시문 2>의 견해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

[문제 4]

1. 출제의도 및 해설

대안 제시형 문항으로, <보기>의 법률이 다수에 의해 소수가 무시되는 상황을 막기에 적절한 대안인지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 견해를 밝히고, 제시문에 있는 단순 다수제 입장과 비례 대표제 입장 중 하나를 활용하여 정당화하는 문제이다.

2. 채점기준

- ①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 ② 제시문 활용 시 단순 반복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심화 응용 수준까지 나아갔는가?

3. 모범답안

1) 찬성 입장을 택할 경우 (비례 대표제의 입장을 활용)

- 소수의 합리적 견제가 가능하게 되어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고, 소수의 의견 반영 정도가 더 높아지므로 대표성이 증진됨

- 정당들이 물리적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게 되어 합의의 정치가 이루어짐
- 폭력적 물리적 대립으로 인한 파행을 막아서 실제적인 입법 효율성 제고
- 신속 처리만이 효율성이 아님.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 마련될수록 법안 시행 과정에서 불만이나 저항이 줄어들어 실제로 효율성이 제고됨

2) 반대 입장을 택할 경우 (단순 다수제의 입장을 활용)

- 소수당이 발목잡기를 하면 다수당이 2/3가 안될 경우 제도적 대응방안이 없어서 다수 여당의 책임성이 약화됨. 소수당은 강자인 다수당이 양보하지 않음을 문제 삼아 책임 면제.
- 과반을 초과하는 동의를 소수가 부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수가 다수를 저지하거나 다수가 소수에 끌려다니는 '소수 독재'를 정당화하여 정국 안정에 불리
-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도 합법적 지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물의회로 전략하게 되어 입법 효율성이 하락함. 합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킨 비효율적 법률
-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 결정 원리, 과반수 의결이라는 원칙에 위배